

of thyroglobulin was completely normalized in one month after operation, but 3 recurrent cases of these thyroid cancer revealed reincreased value of thyroglobulin during follow-up period after postoperative one month.

— 3 —

새성낭종의 임상적 고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차창일 · 정평귀 · 이명진
조중생 · 안희영

새성낭종은 하악각이나 이주에서부터 경부의 하부까지의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통성의 경부종물로서,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이차 감염에 의한 염증 증상으로 발견되는 비교적 드문 선천성 경부 질환이다. 발생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태생기시의 발육이상에 의한 새성기관의 잔유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생학적으로 제 2새열이 Epicardial ridge 쪽으로 발달되면서 제 3, 4 새열로 확장되어 낭을 형성한후 정상적으로는 발생과정중에 폐쇄되거나 폐쇄되지않고 잔존하게되는 경우에 새성낭종을 형성하게 된다.

저자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새성낭종에 대한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1980년 1월부터 1990년 5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에 내원하여 수술후 새성낭종으로 확진된 20례를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비는 총 20례중 남자 11례, 여자 9례였고, 연령별로는 2세~38세의 범위였고, 10세 이하 3례, 10대 6례, 20대 5례, 30대 6례로 10대에서 30대까지가 17례(85%)였다.

2) 측별 발생빈도는 우측 11례, 좌측 8례, 정중부 1례로 우측에 많았다.

3) 주 증상으로는 경부종물 8례, 종물크기증가 7례로 가장 많았으며, 증상 발현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20일에서 14년까지 다양하였으며, 1년 이

하가 11례였다.

4) 이학적 소견상 종물의 크기는 완두콩 크기에서 성인 주먹크기 까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비압통성(80%), 유동성(90%), 표면이 평할한(95%) 종괴로 나타났다.

5) 발생부위는 흉쇄유돌근 심부가 8례로 가장 많았으며, 흉쇄유돌근 전연 3례, 경동맥 삼각 2례 순이었고, 20례중 흉쇄유돌근 상 1/3부위가 15례(75%)로 가장 많았고, 중 1/3부위가 2례, 하 1/3부위가 3례였다.

6) 새성낭종의 Baily 분류상 제 II형이 14례(70%)로 가장 많았고, 제 I형 5례(25%) 제 III형 1례(5%)의 순이었다.

7) 새루가 동반된 경우는 총 20례중 4례였고, 형태상 완전새루 1례, 불완전 새루가 3례였으며, Work 및 Baily의 Branchial cleft sinus tract분류상 제 II형이 3례, 제 III형이 1례였고 발생부위는 흉쇄유돌근 하 1/3부위가 3례, 중 1/3부위가 1례로 하부에 많았다.

8) 과거력상 총 20례중 반복되는 상기도 염종의 병력은 9례, 절개배농의 병력이 7례에서 있었고, 술후 재발은 새루를 동반한 1례에서 있었다.

9) 수술전 진단은 결핵성 임파선염 6례, 새성낭종 5례, 감상설골낭종 2례의 순이었다.

10)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낭종내벽이 중층 편평상피로 구성된 경우가 15례(75%), 혼합형 4례(20%), 상피가 없는 경우가 1례 있었다.

— 4 —

갑상선에 관한 임상적연구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 한영창
추무진 · 박혁동 · 김기환

저자들은 1988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원자력병원에서 수술 치료받았던 갑상선암 환자 41례에 관하여 후향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 분포는 남자 8, 여자 33명으로 여자에서

월등히 많았다.

2) 병리별 분포는 2기 12명, 3기 24명, 4기 5명이었다.

3)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유두상선암 39예, 미분화암 2예였다.

4) 수술후 갑상글로블린 치의 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5) 세침흡인 검사법의 정확도는 69%였다.

6)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저혈당 칼슘증 11예, 성대마비 10예, 출혈 2예등이었다.

7) 수술전 국소전이 18명에서 있었으며 부위별로는 기관주위 임파절 4예 경정맥 임파절(상부 3, 상부 13, 하부 2예), 양측 경부임파절 1예, 기관연골 침범 10예, 식도벽 침범 4예, 종격동 침범 2예, 경동맥 침범 1예였다.

8) 원격 전이는 4예에서 있었으며 부위별로는 폐 3예, 뼈 2예, 교환 1예였다.

— 5 —

두경부 악성종양의 임상적연구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오경균 · 한영창 · 이용식 · 심윤상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증상의 다양성과 기능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조기진단에 어려움이있다.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에서 임상통계학적 치료를 분석함으로써 질병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서 1989년 일년 간에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345명의 악성종양 환자를 조사 분석하였다.

1) 전체적으로 신환의 8.1%로 345명이었고, 남자는 남자신환의 16.1%인 262명, 여자는 여자신환의 3.2%인 83명으로 남녀비는 3.2 : 1이었고, 연령분포는 50대(35.6%), 60대(27.2%), 40대(13.6%)의 순으로 50대 이후가 전체의 73.3%이었다. 평균연령은 전체적으로 54.8세이고, 남자 56.6세 여자 50.2세이었다.

2) 악성종양의 원발부위별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발생은 구순 및 구강 55명, 인두 123명(구인두 46, 비인두 31, 하인두 46), 후두 71명, 비강 및 부비동 24명, 타액선 11명, 갑상선 20명, 이부 2명, 기관식도 16명(식도 13, 기관지 3), 경부 23명(원발부 미확인 경부전이 16명, 원발육종 7)등 이었다.

3) 병리조직학적 분류로는 편평상피세포암 255명(73.9%), 악성임파종 23명(6.7%), 유두상암 20명(5.8%), 미분화암 11명(3.2%), 선양낭포암 12명(3.5%), 선암 5명, 점막상피암 3명, 기저세포암 2명등이었다. 편평상피세포암의 구성비는 전체로는 73.9%(255명)이었고, 남자에서는 81.3%(213명), 여자에서는 50.6%(42명)이었다.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남녀비는 편평상피세포암 5 : 1, 악성임파종 1.6 : 1, 유두상암 1 : 4, 미분화암 3.3 : 1등이었다.

4) 병리조직학적으로 경부전이가 확인된 58명의 원발부위는 후두 12명, 구강 10명(설 4, 구강저 3, 치은 2, 경구개 1), 갑상선 11명, 인두 8명(하인두 5, 비인두 2, 구인두 1), 식도 1명이었고, 원발부 미확인 경부 전이종양이 16명이었다. 원발부 미확인 경부전이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분포는 편평상피세포암 14명, 선암 2명이었다.

— 6 —

새성낭종으로 오인된 경부임파전이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두경부외과학교실, 치료방사선학교실*

이승호 · 차흥억 · 최종욱 · 최명선*

경부 임파전이절은 일반적으로 낭포성 변성(cystic degeneration)을 잘 하는 경향이 있어 선천성 경부 낭종과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새성낭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2년 뒤 비인강암에서 전이된 임파전이절로 판명된 63세 남자와 4년 뒤 편도암에서 전이된 임파전이절로 판명된 35세 남자에 대하여 각각의 치료 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